

W_F_022

바당에서 죽은 신산리 아홉 동서

2016년 10월 22일, 성산읍 신산리 김옥종씨 댁, 이현정 조사.
김옥종(남, 1924년생, 성산읍 신산리)

[제보자] 옛날에 덕판이엔 혼 베가 잊어낫어.

[조사자] 덕판?

[제보자] 응.

[조사자] 예.

[제보자] 그, 느네덜은 잘 모를 거다. 나도 몰르는디, 덕판이엔 혼 베가 잊는다. 그 덕판이
엔 혼 건, 그, 베 이름을 그, 덕판으로 이름을 지운 거지. 그, 앞, 그래서 베가
막 넓은 모냥이라 넓이가. 그러니까 아홉 동서 탕, 바다이 고기 낚으레 가고는 헷
는다. 아홉 동서가 것도 신산리 사럼덜인디 다 죽어불언.

[조사자] 어디가? 바다에서?

[제보자] 바다에서, 이 앞이서. 그 멀리도 아, 그, 거시기 함덕, 덕판이엔 혼 게 멀리도 안
나가는디. 그, 폭풍 만낭, 아홉 동서가 죽언. 그 (기침) 제소 때에 나가민 으디
으, 거시기, 선창? 선창?에를 (불청), 열 두시가 넘어가민 막, 그 아홉 동서 구
신이 다 바당드레 나가젠 막 거시기 헣다고, 응? 경계를 옛날 어른덜이 경 골으
긴 헣디. 으 뭐, 우리가 어린 띠 혼 일이나난. 먼 옛날 일도 아니주.

[조사자] 그지예? 한 몇 십년, 한.

[제보자] 뭣, 이, 열두 시 넘어가면 막, 물 싸불믄은 못 나간덴 허믄, 막 와당와당 나값젠
헌덴. 그런 말은 들어낫어.

[조사자] 와당와당 나값젠 헌덴? 아, 아홉 동서가?

[제보자] 계난, 물을 든 때 나가야지 물 싸면 못 나가니까. 그렇게 말을 멘덜아 논 거지.

[조사자] 죽으러 값젠, 죽으러 값젠.

[제보자] 죽으레 가는 게 아이고, 죽을 구신이 올라왕 저소 먹엉 나간다 얘기지, 바당더레.

[조사자] 죽은 귀신이 올라왕, 저소 먹으레 나간다고.

[제보자] 응. 제소 먹엉 나가는 거지.

[조사자] 아, 나가는 거.

[제보자] 어, 그런 말은 잊어. 겐디 건, 것도 뭐, 우리, 에, 출생 후에 헤여난 일이주, 뭐.
아주 옛날 말도 아이주 건.

- 핵심어 : 성산읍 신산리, 아홉 동서, 덕판, 폭풍, 바당